전통과 함께 흥겨운 주말

전통문화관 일요상설공연

전통공연·풍속 체험 다채

정월대보름·경칩 행사도

광산농악보존회 '길놀이'

3월을 맞아 전통문화관 일요상설공연이 시작된다.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세시풍속체험과 전통공연으로 구성된 일요상설공연을 선보인다.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솟을대문 앞에서 세시풍속체험이, 너덜마당과 서석당에서 오후 3시부터 전통공연이 펼쳐진다.

일요상설공연은 신인부터 무형문화재까지 '사색'의 출연진이 펼치는 흥겨운 '사판' 무대로 꾸며진다. 매달 첫째 주 일요일에는 무형문화재 위주의 공연과 절식 체험이 예정돼 있다. 둘째 주는 다양한 연희단체가 꾸미는 연희 마당과 민속놀이 체험, 셋째 주는 미술관 관계자를 초청해 이야기를 나누는 '그림이 있는 전통문화관'이 펼쳐진다. 그리고 넷째 주는 신인 연주자들의 풍류무대와 악기체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사색 사판'의 전통공연과 문화체험은 절기 행사로 채워진다. 3월과 4월에는 콩볶기, 화전놀이 등 경칩·청명에 행해졌던 세시풍속 체험이 진행되며 5월과 6월에는 쑥무리와 유두놀이 등 입하와 하지의 세시풍속 체험이 열린다. 9월과 10월에는 추분과 상강에 연계되는 강강술래와 국화전 등이 예정돼 있으며 11월에는 입동에 맞는 시루떡 나눠먹기 체험이 진행된다.

일요상설공연 3월 첫째 판은 오는 4일 오후 2시부터 전통문화관 솟을대문 앞에서 펼쳐진다.

정월대보름에 먹는 오곡으로 강정을 만들고, 콩을 볶아 부스럼을 예방하는 콩 볶기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너덜마당에서는 개구리 높이뛰기, 개구리 멀리뛰기, 개구리 씨름 등 개구리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개구리 놀이터가 운영된다.

오후 2시부터 전통문화관에서는 광산농악보존회의 길놀이가 시작되며 오후 3시부터 너덜마당의 야외무대에서는 무형문화재 가족들이 출현하는 가족 풍류전이 열린다.

정월대보름과 경칩행사는 무료로 시민 누구나 관람가능하다. 오는 11일 일요상설공연은 타악그룹 얼쑤 초청 '봄의 태동'과 체험이 예정돼 있다. 문의 062-232-1502.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이란 영화·태국 영상의 세상 향한 메시지

문화전당 '씨네 뷰잉룸' 운영

영화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천국의 아이들', '취한 말들을 위한 시간'

우리나라에서도 인기를 모았던 이란 영화를 집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은 오는 4월 29일까지 ACC 라이브러리파크 블랙박스에서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씨네 뷰잉룸'(매일 오후 3시)을 진행한다.

'씨네 뷰잉룸'은 지역 및 주제에 따라 관련 영화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시즌형 상영 프로그램으로 이번 시즌은 이란 영화 특집이다. 상영작은 압바스 키아로스타미, 바흐만 고바디, 모흐센 마흐말바프, 아쉬가르 파라디 등 전 세계 영화계에 강한 인상을 남긴 감독들의 작품 24편이다.

'올리브 나무 사이로', '거북이도 난다', '체리 향기' 등 상영작들은 이슬람 혁명 이후의 사회상을 비판적으로 담아내면서도 인간의 보편적 삶을 사실적이고 순수하게 그려내고 있다.

이란 영화 상영과 함께 아라야 라잠레안숙(Araya Rasdjarmrearnsook) 연구컬렉션을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막간(幕間)' 프로그램(오전 10시~오후 3시)에서는 ACC 문화정보원 필름앤비디오 아카이브 중 하나인 태국의 영상작가 '아라야 라잠레안숙(Araya Rasdjarmrearnsook)'의 비디오 작품과 연구 자료들을 소개한다. 태국 농민들이 유명회화 작품을 바라보는 방식을 다룬 '두 행성(Two Planets)' 시리즈 등 유명 작품이 상영된다. 무료 상영.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형형색색 모란꽃 세상 롯데갤러리 김근중 작가 초대전 오늘~29일

'꽃세상-原本自然圖 11'

화폭 가득 형형색색 화려한 모란꽃이 피었다.

롯데갤러리(롯데백화점 광주점 11층)는 '모란 작가'로 알려진 김근중 작가를 초청, 2~29일까지 신춘기획전을 연다.

'화원 ; 피고 지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다양한 스타일의 모란 시리즈부터 근작인 비구상 작품까지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인다.

1990년대, 고구려 벽화와 둔황벽화를 모티브로 한 벽화작업에서 출발한 김 작가는 2005년부터 전통 화조화와 민화의 영향을 받아 모란 작업에 몰두하기 시작했고, 2012년부터는 구체성을 탈피, 추상성을 가미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전시 부제 화원(花園)은 작가가 언급하는 '꽃세상'처럼 희로애락, 욕망, 번뇌, 희망 등이 공존하는 세상을 의미하며, '피고 지다'는 그 안에서 생성되고 소멸되는 존재들을 말한다.

근작인 '꽃, 이전' 연작은 예전의 구체성은 사라졌지만 원시적인 기운의 색면과 원색의 사용으로 생동하는 생명력을 엿볼 수 있다.

전시 기간 중에는 관람객 체험 프로그램으로 '봄봄, 꽃액자 만들기'를 진행한다.

홍익대 동양화과와 대만문화대학교 예술대학원을 졸업한 김 씨는 현재 가천대 교수로 재직중이며 뉴욕, 도쿄 등 국내외 갤러리에서 20여차례 개인전을 열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돼 있으며 토탈미술상, 동아미술상 등을 수상했다. 문의 062-221-180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콩고 원시 가면 만들어볼까

영산강문화관 주말 문화교육

콩고 원시 가면

영산강문화관(관장 장희정)이 2018 문화예술교육을 시작한다. 교육은 매주 토·일요일 오후 2시 열린다.

3월 강좌는 세계의 강과 역사·문화에 대한 지식을 넓히는 '세계 강 문화 체험'(일요일)과 다양한 분야를 응용해 창의력을 키우는 '영산강문화예술강좌'(토요일)로 나눠 진행한다.

세계 강 문화 체험의 3월 주제는 '아프리카 콩고강'이다. 콩고강의 문화와 예술을 주제로 교육하고 원시 가면을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도 갖는다.

예술강좌에서는 재활용품을 활용한 정크 아트 체험인 '친환경 조형교실'을 운영한다.

패트병 공중화분 만들기(3·10일), 휴지 심지 만다라(17·24일) 등이다.

모집 인원은 회당 20명이며 접수는 영산강 문화관 카페(cafe.naver.com/yeongsangang)로 하면된다. 문의 061-335-086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담양 생오지문예대학 수강생 15일까지 모집

소설가 문순태

담양 생오지문예창작대학(이사장 문순태)이 2018년 수강생을 모집한다.

오는 17일 개강하는 생오지문예창작대학은 시창작반(30명), 소설창작반(30명), 소설등단반(14명명), 종합글쓰기반(30명) 등 모두 4개반으로 운영된다.

수업은 매주 토요일 인재육성아카데미 교육장(광주시 동구 천변우로 335)에서 진행되며 문순태 소설가를 비롯, 은미희·심영의 소설가, 박순원·김성철 시인, 윤삼현 평론가 겸 시인이 강사로 나선다.

등록기간은 기존 수강생은 6일까지, 신입 수강생은 7일~15일까지며 전화 또는 이메일(jyjc910106@naver.com)로 접수, 등록이 가능하다. 소설 등단반은 단편 1편을 이메일(jyjc910106@naver.com)로 접수해(10일까지 작품 마감) 합격자에 한해 수강신청 가능하다.

한편 2012년에 문을 연 생오지문예창작대학은 지금까지 신춘문예와 유명 문예지를 통해 43명의 시인과 소설가를 배출해 문인산실로 명성을 얻고 있다.

2017년에는 광주일보 신춘문예 소설부문에 송은유 씨가 당선되는 등 지난해에 모두 6명이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문의 010-2441-4830, 카페 '생오지문예창작촌' 참조.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